

‘재물’인가, ‘토지’인가?

-마가복음 10:22의 본문 비평, 주해와 번역-

신현우*

1. 시작하는 말

성경 본문의 확정¹⁾은 성경 번역에 영향을 미친다. 번역할 본문을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따라 본문을 번역한 결과는 달라진다. 저자가 최초로 저술한 원래의 본문을 번역하고자 할 경우 그 원래의 본문에 가까운 본문을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따라서 원 본문을 복원하는 작업으로서의 본문 비평은 번역을 위해 중요한 기초 작업이다.

성서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지 본문 비평이 아니다. 본문의 주해는 번역에 영향을 미친다. 번역자가 어떻게 본문을 이해하였는가에 따라 본문은 다르게 번역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마가복음 10:22에서 κτήματα가 원래의 읽기인지 본문 비평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이 원래의 읽기인 경우, 마가복음 10:22의 주해를 통하여 κτήματα가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처럼 ‘재물’이나 ‘재산’으로 번역되어야 하는지, ‘토지’나 ‘소유지’로 새롭게 번역되어야 하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신약학

1) 본문 비평이 성경 번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신현우, “사본학과 성경 번역,” 「성경과 신학」 41 (2007), 67-97 참조.

2. 마가복음 10:22의 κτήματα의 번역 전통

마가복음 10:22의 κτήματα는 κτήμα의 복수형이다. κτήμα는 ‘재산’이나 ‘소유지’, ‘토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다.²⁾ 그러므로 이 단어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주해되고 번역되어야 한다. 그런데 마가복음 10:22에서 κτήματα는 번역본들은 한결같이 ‘재산’이나 ‘재물’로 번역해 왔고 ‘토지’로 번역하지 않았다.

2.1. 한글 번역본들

마가복음 10:22의 κτήματα는 한글 번역본들에서 다음과 같이 ‘재산’이나 ‘재물’으로 번역되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개역).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개역개정).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새번역, 표준개정).

그러나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공동, 공동개정).

그러나 그는 **재산**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 버렸다(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쉬운 성경).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런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우리말 성경).

2) BDAG, 572.

이 한글 번역본들 중 κτήματα를 ‘토지’로 번역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번역본들 중 『공동』 및 『공동 개정』 판,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은 마가복음에서 ‘재산’ 또는 ‘재물’로 번역한 단어 κτήματα를 사도행전 5:1에서는 ‘땅’으로 번역한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개역).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개역개정).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새번역, 표준개정).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 **땅**을 판 다음(공동, 공동개정).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고 **땅**을 팔아(현대인의 성경).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자기들의 **땅** 일부분을 팔았습니다(쉬운 성경).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우리말 성경).

사도행전 5:1에서 ‘땅’이란 번역이 가능한 이유는 사도행전 5:8에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땅(χωρίου)을 판 금액을 언급하는 문맥을 고려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10:22에서도 문맥이 지원한다면 ‘땅’이나 ‘토지’라는 번역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2.2. 외국어 번역본 검토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마가복음 10:22의 κτήματα를 ‘possessions’(소유물)로 번역하였다(ASV, NAB, DBY, DRA, ESV, GNV, NAS, NKJ, NLT, RSV, NRS, RWB, WEB, YLT 등). NIV

와 NJB는 이것을 ‘wealth’(부)로 번역하였고 BBE는 ‘property’(재산)로 번역하였다.

독일어 번역본들은 마가복음 10:22의 κτήματα를 ‘Güter’(재물)로 번역하였다(ELB, ELO, LUO, LUT, MNT, SCH 등). EIN은 이를 ‘Vermögen’(부)으로 번역하였다.

대부분의 불어 번역본들은 마가복음 10:22의 κτήματα를 ‘biens’(재물)으로 번역하였다(BFC, DRB, FBJ, LSG, NEG, TOB 등).

네덜란드어 번역본 중 LEI, SVV는 마가복음 10:22의 κτήματα를 ‘bezittingen’(소유)으로 번역하였다. LUV, NBG는 ‘goederen’(재물)으로 번역하였다.

κτήμα가 ‘토지’를 가리킬 수 있는 단어임을 고려할 때 영어, 독일어, 불어, 네덜란드어의 주요 번역본들이 하나같이 κτήματα(κτήμα의 복수형)의 번역어로 재물이란 뜻의 단어들을 채택하고 토지를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 번역본들 중에는 사도행전 5:1에서 κτήμα를 토지를 뜻하는 단어로 번역한 것들도 있다. 영어 번역본들 중 DRA(The Douay-Rheims American Edition, 1899)는 사도행전 5:1에서 κτήμα를 ‘land’로 번역하였다. 독일어 번역본 중 EIN(Einheitsübersetzung, 1980)은 이것을 ‘Grundstück’(토지)으로 번역하였고, LUT(Revidierte Lutherbibel, 1984)는 ‘Acker’(농토)로 번역하였다. 불어 번역본 BFC(1997)는 ‘terrain’(토지)을 번역어로 썼다. 네덜란드어 번역본 LEI(Leidse Vertaling, 1912/1994)는 ‘akker’(농토)라는 단어로 번역하였다. 이들 번역본들은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사도행전 5:1에서는 ‘토지’를 뜻하는 단어로 마가복음 10:22에서는 ‘재물’을 뜻하는 말로 서로 다르게 번역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사도행전 5:1에서 κτήμα가 문맥적으로 토지를 뜻하는 말로 번역될 수 있다면, 마가복음 10:22에서도 문맥이 지원한다면 동일한 단어의 복수형인 κτήματα를 토지

를 뜻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3. 본문 비평- κτήματα인가, χρήματα인가?

알란트(K. Aland)가 편집한 Synoptis Quattuor Evangeliorum, 제 15판, 3차 개정증보쇄(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1)는 마가복음 10:22에서 다음과 같은 이문들이 발견됨을 보고한다.

- | | |
|------------------------------|-------------|
| (1) κτήματα πολλά | <i>rell</i> |
| (2) πολλά χρήματα | D it |
| (3) πολλά χρήματα καὶ ἀγρούς | b k; (Cl) |

만일 (2)가 원래의 읽기(the original reading)였다면 ‘많은 재산’이라는 번역이 정당화될 수 있다. χρήματα는 χρῆμα의 복수형이며, χρῆμα는 ‘재산’(property), ‘부’(wealth), ‘돈’(money) 등을 뜻하기 때 문이다.³⁾ 사도행전 4:37에서 χρῆμα는 토지를 팔고 받은 돈을 가리킨다. 다니엘 11:28은 χρῆμα가 이동 가능한 재산을 가리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ἐπιστρέψει εἰς τὴν χώραν αὐτοῦ ἐν χρήμασι πολλοῖς
 그가 많은 재산[χρήμασι]을 가지고 그의 지역으로 돌아갈 것이다.

‘넓은 토지’라는 번역은 오직 (1)이 원래의 읽기일 때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과연 (1)이 원래의 읽기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방 사본들, 즉 베자 사본과 고대 라틴어 역본들(D it)은 κτήματα πολλά 대신 πολλά χρήματα나 이에 해당하는 라틴어 번역

3) BDAG, 1089.

을 가지고 있다. 서방 사본들 중 고대 라틴어 역본 b k는 *πολλὰ χρήματα καὶ ἀγρούς*에 해당하는 라틴어 번역을 가진다. 그렇지만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사본들은 *κτῆματα πολλὰ*를 지원한다. 더구나 고대 라틴어 역본들 중에 f q는 ‘*divitias multas*’라고 읽어⁴⁾ (1)의 어순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1)을 지지하는 외증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확실한 판단을 위해 내증을 해야 한다.

(1)은 마태복음 19:22에 조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19:22의 *κτῆματα πολλὰ*가 원래부터 마가복음에 일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자주 일치하므로 이곳에서 본래부터 일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마가복음을 마태복음 저자가 자료로 사용하였다는 가설을 받아들인다면⁵⁾ 이러한 가능성은 더 더구나 인정해야 한다. 이 가설에 입각하여 마태복음의 *κτῆματα πολλὰ*는 마가복음에서 그대로 온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서로 다른 표현들이 서로 동일하게(유사하게) 조화되었다는 설명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없다. 더구나 (2)의 *χρήματα*는 바로 다음 절(막 10:23)의 *χρήματα*에 동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⁶⁾ 그러므로 (1)이 마태복음에 조화되었다는 이유로 (1)의 원문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3)은 단지 몇몇 고대 라틴어 역본들(b k)과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의 성경 인용에 의해⁷⁾ 간접적으로 지원

4) A. Jülicher, ed., *Itala: Das Neue Testament in altlateinischer Überlieferung*, 2, 2nd ed. (Berlin: Walter de Gruyter, 1970), 93.

5) 이 가설은 신약학자들이 대부분 받아들이는 가설로서 ‘마가 우선설’(the hypothesis of Marcan priority)이라고 불린다.

6) 테일러(V. Taylor)는 이 가능성을 주장한다. V. Taylor,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London: Macmillan, 1955), 430. n.1.

7) 클레멘트의 인용에는 *χρήματα πολλὰ καὶ ἀγρούς*라고 되어 있다[R. J.

받으므로 외증이 약하다. (3)은 아마도 (2)에서 발생하였을 것이다. (2)의 χρήματα(재물)는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필사자들은 καὶ ἀγρούς를 추가하여 토지가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였을 것이다.

마가복음의 문체에 관한 관찰은 (1)과 (2) 중에서 (1)을 원래의 읽기로 선택하게 한다. 마가복음은 πολλά가 명사를 꾸며줄 경우 그것을 언제나 수식하는 명사 뒤에 두므로, (1)이 마가복음의 문체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1:34	δαίμόνια πολλά
4:2	παραβολαῖς πολλά
6:13	δαίμόνια πολλά
7:4	ἄλλα πολλά
7:13	τοιαῦτα πολλά

위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외증(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본들)과 내증(저자의 문체)이 모두 (1)을 지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1)이 원래의 읽기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κτήμα의 용례 연구

본문 비평으로 우리는 πολλά χρήματα(많은 재물)가 아니라 κτήματα πολλά가 원 본문에 속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χρήματα가 아니라 κτήματα를 번역해야 한다. 이것을 번역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주해적 작업은 이 단어가 어떠한 뜻으로 사용

Swanson, *New Testament Greek Manuscripts: Mark*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162].

되었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단어의 의미는 단어의 용례에서 발견해야 하고, 특히 동일 저자가 그 단어를 사용한 용례에서 발견해야 한다. 동일한 단어라고 하더라도 저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므로 동일한 저자의 용례를 살펴야 저자가 그 단어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κτήμα는 마가복음에서 10:22에 한 번 등장한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문헌에 사용된 용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마가복음에 인용된 구약 본문들이 70인역과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⁸⁾ 마가복음의 저자는 70인역을 알고 사용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70인역을 알고 사용했다면 70인역에 사용된 헬라이어 용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70인역에서 κτήμα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면 그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어떠한 뜻을 가질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4.1. 70인역 구약 본문에서의 κτήμα의 용례

70인역에서 κτήμα는 잠언 12:27; 23:10; 31:16; 욥기 20:29; 27:13; 호세아 2:17; 요엘 1:11에서 사용되었다. 70인역은 히브리어 본문의 헬라이어 번역이므로 이 구절들을 히브리어 본문과 비교하면 이 구절들에 사용된 κτήμα의 의미를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 70인역의 역자들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히브리어 본문은 없지만 편의상 BHS 본문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⁹⁾ 그렇

8) 마가복음이 구약을 문자적으로 인용한 부분(1:2, 3; 7:6-7, 10; 10:19; 11:17; 12:10-11, 19, 26, 29, 30, 31, 32, 36)에 사용된 206 단어 중 178 단어가 70인역과 일치한다. 이것은 86.4%의 일치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 비교를 위하여 편의상 NTG27의 마가복음 본문과 A. Rahlfs, ed.,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35)의 본문을 사용하였다.

지만 70인역이 토대로 한 히브리어 본문과 BHS 본문이 서로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70인역 자체의 문맥이 70인역에 사용된 κτήμα의 의미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근거가 되어야 한다.

잠언 23:10에서 κτήμα는 히브리어 본문의 תָּבַח(토지)에 대응하는 헬라이어이다. 문맥상으로도 κτήμα는 토지를 가리킨다. 70인역 잠언 23:10은 “영원한 경계들(ὄρια)을 변경시키지 말고 고아의 κτήμα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므로 κτήμα는 ὄρια(경계)에 평행되는 단어이다. ‘영원한 경계’란 조상 대대로 기업을 내려오는 토지의 경계를 가리킨다.¹⁰⁾ 그러므로 κτήμα는 토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κτήμα에 들어가지 말라’는 표현은 κτήμα가 ‘재물’이 아니라 ‘토지’를 가리킴을 분명하게 해 준다.

잠언 31:16에서 κτήμα는 히브리어 본문의 מִדְּבַר(포도원)에 대응된다. 그러므로 ‘재물’보다는 ‘토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70인역의 문맥도 ‘토지’라는 의미를 지원한다. 70인역 잠언 31:16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녀는 농토(γεώργιον)를 보고 구입한 후에 그녀의 손의 열매로부터 κτήμα에 심었다.” 농토를 구입한 후에 κτήμα에 심었다면 κτήμα는 소유지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0인역 호세아 2:17에서 κτήματα는 히브리어 본문의 מִדְּבַר(포도원)에 대응한다. 따라서 κτήματα는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70인역 자체의 문맥도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께서 κτήματα를 주신다는 맥락이다(δώσω αὐτῆ τὰ κτήματα). 출애굽 후에

9) 편의상 이 논문에서 구약과 외경의 70인역 본문은 Rahlfs, ed., *Septuaginta*의 본문을 사용하였다.

10) 토지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은 신명기 27:17을 배경으로 한다. 70인역 신명기 27:17은 이웃의 ὄρια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토지의 경계를 옮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희년이 되면 토지가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레위기 25장의 토지법과 관련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으므로 κτήματα는 토지를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요엘 1:11에서 κτήματα는 히브리어 본문의 כַּרְמֵי(포도원들)에 대응된다. 또한 70인역의 문맥은 “추수를 망쳤기 때문에”(ὅτι ἀπόλωλεν ρυγητὸς ἐξ ἀγροῦ) “κτήματα를 위하여 슬퍼하라”는 내용과 관련되므로 κτήματα는 토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욥기 20:29에서 κτήμα는 히브리어 본문의 נַחֲלָה(기업, 분깃¹¹⁾)에 대응한다. נַחֲלָה는 일차적으로 상속 재산을 가리키는데 상속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였다.¹²⁾ 그러므로 이 단어에 대응하는 κτήμα는 토지를 가리킬 수도 있다. 70인역 욥기 20:29의 문맥 내에서 보면 κτήμα는 μερίς(분깃, portion)에 평행된다.

αὕτη ἡ μερίς ἀνθρώπου ἀσεβοῦς παρὰ κυρίου καὶ κτήμα
ὑπαρχόντων αὐτῷ παρὰ τοῦ ἐπισκόπου

이것은 불경건한 사람이 주로부터 받는 μερίς이며 감찰자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소유들 가운데 κτήμα이다.

μερίς는 이스라엘 각 집이 분배받은 분깃으로서 토지를 가리킬 수 있다(민 18:20; 수 14:4; 18:5). 욥기 20:29에서 κτήμα는 하나님의 보응을 가리키기 위해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비유적 의미는 하나님께 상속받은 토지를 가리키는 1차적 의미를 토대로 얻어진다.

욥기 27:13에서도 κτήμα는 נַחֲלָה(기업, inheritance)에 대응한다. 70인역 문맥에서 κτήμα는 μερίς(분깃, portion)에 평행된다.

11) BDB, 635.

12) 민수기 26:53; 33:54; 신명기 4:21; 여호수아 11:23; 13:6; 시편 105:11; 에스겔 47:14; 48:29 참조.

αὕτη ἡ μερίς ἀνθρώπου ἀσεβοῦς παρὰ κυρίου κτήμα δὲ δυναστῶν
ἐλεύσεται παρὰ παντοκράτορος ἐπ’ αὐτούς.

이것은 불경건한 사람이 주로부터 받는 μερίς이며, 전능자로부터 권력
자들에게 κτήμα가 임할 것이다.

여기서 κτήμα는 이스라엘 각 집이 분배받은 분깃으로서의 토지를
염두에 두고 쓰인 것이다. 물론 문맥에서 이 단어는 비유적 의미를
가지지만 비유되는 내용(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보응)은 이스
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서의 토지에 비유되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70인역에서 사용된 κτήμα라는 단어는 대개
토지를 가리키거나 토지라는 구체적 개념을 기초로 형성된 추상적
개념을 가진다. 70인역에서 κτήμα가 토지를 의미하지 않는 본문은
잠언 12:27뿐이다. 잠언 12:27에서 κτήμα는 히브리어 본문의 ַיִּט(부)
에 대응하고 문맥상으로도 ‘토지’를 뜻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부’(wealth)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4.2. 구약 외경에서의 κτήμα의 용례

구약 외경의 용례도 살펴보자. 마가복음이 구약 외경을 인용한
적은 없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저자가 구약의 외경을 알았고 그 영
향을 받았다고 확증할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외경에 나타난 κτήμα
의 용례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κτήμα의 의미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마가복음보다 미리 기록된 외경들이라면 마가복음의 저
자가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리
한 외경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외경들에 사용된 헬라어는 1세기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사용한 헬라어와 유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
므로 외경에서의 용례를 보조적 증거로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집회서 28:24에서 가시나무로(ἀκάινθαις) κτήμα를 두른다는 표현으로 보아 문맥상 κτήμα는 토지를 가리킨다. 그러나 구약 외경의 다른 곳에서는 κτήμα가 명확하게 토지를 가리키지 않는다.

집회서 36:25에서는 κτήμα와 관련하여 담(φραγμός)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κτήμα는 토지를 가리킬 수 있는 듯하지만, διαρπαγήσεται(“약탈될 것이다”)라는 동사가 κτήμα를 주어로 취하므로 κτήμα는 담이 없는 곳에서 도적에 의해 약탈될 수 있는 재물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집회서 51:21에서 κτήμα는 지혜를 추구한 댓가로 주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추상적 개념으로 쓰였다.

솔로몬의 지혜서 8:5에서 κτήμα는 소유일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εἰ δὲ πλοῦτός ἐστιν ἐπιθυμητὸν κτήμα ἐν βίῳ τί σοφίας πλουσιώτερον τῆς τὰ πάντα ἐργαζομένης.

만일 부가 인생의 바람직한 κτήμα라면, 모든 것들에 작용하는 지혜보다 더 부유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부는 κτήμα의 일종으로 이해되었고, 지혜는 부 중에서 가장 부유한 것으로서 부의 일종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이 본문에 의하면 지혜도 κτήμα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κτήμα는 토지를 염두에 두고 쓰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물질적 부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쓰였다.

솔로몬의 지혜서 13:17의 경우에는 문맥에서 κτημάτων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없다. 이 단어가 굳이 토지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단서를 찾을 수 없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단서도 찾을 수 없다. 요약하면, 구약 외경에서 κτήμα는 집회서 28:24에서 한 번 토지로 쓰였고 이 단어가 쓰인 다른 네 곳에서는 토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4.3. 신약성서에서의 κτήμα의 용례

신약성서에서의 κτήμα의 용례는 마가복음의 κτήμα의 뜻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신약성경들은 마가복음과 동시대 작품이고 더구나 마가복음처럼 기독교인들의 작품이므로 마가복음과 유사한 의미로 κτήμα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신약성서에서의 κτήμα의 용례는 마가복음에서의 κτήμα의 뜻에 관한 보조 증거가 될 수 있다.

신약성서에서 κτήμα는 4회 쓰였다. 마가복음 10:22을 제외하면 마태복음 19:22; 사도행전 2:45; 5:1에서 사용되었다.

ἀκούσας δὲ ὁ νεανίσκος τὸν λόγον ἀπῆλθεν λυπούμενος· ἦν γὰρ ἔχων κτήματα πολλά(마 19:22)

마태복음 19:22은 마가복음 10:22의 평행구절이다. 마태복음은 다른 곳에서 κτήμα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용례로 이 단어의 뜻을 추측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κτήματα의 뜻은 문맥에서 추측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19:20-21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을 채워 온전하게 율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한다. 율법 준수를 위해서 팔아야만 하는 것은 과다 소유한 토지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토지를 분깃 이상으로 많이 소유하지 못하게 명하기 때문이다(신 27:17). 그런데 마태복음 19:22은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간 사람이 κτήματα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κτήματα는 문맥상 토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καὶ τὰ κτήματα καὶ τὰς ὑπάρξεις ἐπίπρασκον καὶ διεμέριζον αὐτὰ πᾶσιν καθότι ἂν τις χρεῖαν εἶχεν(행 2:45).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κτήματα와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 그렇다면 κτήματα는 팔아야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최소한 돈이 아니고, 아마 집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물론 가구 등을 가리킬 가능성도 있지만, 사도행전 4:34-45은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한다. 사도행전 4:34-45은 2:45에서 간략하게 기술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주며 성도들이 판 것은 토지나 가옥(χωρίων ἢ οἰκιῶν)이었음을 알려준다. 이것들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전하면 사도들은 이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45에서 κτήματα는 ‘토지’나 ‘가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Ἀνὴρ δὲ τις Ἀνανίας ὀνόματι σὺν σαπφίρῃ τῇ γυναικὶ αὐτοῦ ἐπώλησεν κτῆμα(행 5:1).

사도행전 5:1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것은 κτῆμα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근접 문맥이 알려준다. 4:34는 집이나 토지를 판 것을 언급하고, 5:1의 직전에 놓인 구절인 4:37은 바나바가 밭(ἀγροῦ)을 팔았다고 알려준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것도 토지라고 볼 수 있다. 5:3에서 베드로는 ‘땅 값’(τῆς τιμῆς τοῦ χωρίο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것이 땅임을 더욱 분명히 한다. 5:8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 번 삽비라에게 땅(χωρίου)을 판 금액을 언급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5:1에서 팔았다고 묘사된 κτῆμα가 토지인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신약성서에서 κτήμα는 대개 토지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κτήμα가 토지를 가리키지 않음이 명확한 곳은 신약성서에서 찾아볼 수 없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κτήμα에 ‘토지’보다는 ‘재물,’ ‘소유’란 의미를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마가와 동시대의 기독교인들이 κτήμα를 ‘토지’란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은 마가도 그렇게 사용하였으리라는 개연성을 더해준다.

4.4. 요세푸스의 작품들에 나타난 κτήμα의 용례¹³⁾

1세기 유대인 요세푸스의 작품들은 마가복음이 저술된 1세기에 유대인들이 사용한 헬라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요세푸스의 작품들에서 κτήμα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κτήμα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추측하게 하는 보조증거가 될 수 있다.

요세푸스의 작품에서 최소한 다음의 여덟 곳에서 κτήμα는 ‘소유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1) *Antiquity* 2:192에서 요셉은 왕에게 속한 땅(γῆν)을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고 그들이 그 땅을 자신들의 κτήμα로 간주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κτήμα는 ‘소유지’라는 의미를 가진다. (2) *Antiquity* 6:322에서 κτήμα는 세켈라(Σεκέλλα)란 마을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본문은 다윗이 그 마을을 “그 자신의 κτήμα로 간주했다”(ἴδιον κτήμα ἐτίμησεν εἶναι)고 하므로, 여기서 κτήμα는 ‘소유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3) *Antiquity* 8:355은 왕이 자신의 땅 옆에 있는 나뭇의 땅을 사서 그것들을 하나의 κτήμα로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κτήμα는 ‘소유지’를 가리킨다. (4) *Antiquity* 11:8에서 κτήματα를 떠나기 싫어 바벨

13) 요세푸스의 본문을 위해서 편의상 Niese판(1890)을 사용하였다.

론에 남았다는 표현(κατέμειναν ἐν τῇ Βαβυλῶνι τὰ κτήματα καταλιπεῖν οὐ θέλοντες)은 이 단어가 움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움길 수 없는 토지인 것을 암시한다. (5) *Antiquity* 15:91은 “시리아를 (자신의) κτήμα로 만들기를 꾀했다”(τὴν Συρίαν ἐπενόει κτήμα ποιήσασθαι)고 한다. 여기서 κτήμα는 문맥상 ‘소유지’, ‘영지’를 뜻하는 말로 쓰였다고 판단된다. (6) *Antiquity* 17:289에서 “프톨레마이오스(Πτολεμαῖος, Ptolemy)의 κτήμα인 아루스(Ἄρους)란 이름의 어떤 마을에서”(ἐν τινι κώμῃ Πτολεμαίου κτήματι Ἄρους ὄνομα αὐτῆ)란 표현은 κτήμα가 ‘소유지’, ‘영지’라는 뜻으로 쓰였음을 알려준다. (7) *Jewish War* 2:69은 “아루스(Ἄρους)란 마을은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속한 κτήμα이다”(κώμην Ἄρουῦν καλουμένην κτήμα δὲ ἦν Πτολεμαίου)라고 기술한다. 여기서 κτήμα는 ‘토지’란 뜻으로 쓰였다. (8) *Jewish War* 3:107에서 κτήμα는 동으로 유프라테스, 서로는 대해(대서양), 남으로는 리비아, 북으로는 다뉴브와 라인강이 로마의 국경임을 가리키는 문맥에서 사용되므로 로마의 ‘영토’를 가리킨다.

그러나 요세푸스의 작품에서 κτήμα는 토지가 아닌 다른 소유물을 가리키기도 한다. (1) *Antiquity* 4:288에서 ‘땅과 다른 κτημάτων 대신에’(ἀντὶ γῆς καὶ τῶν ἄλλων κτημάτων)란 표현은 κτημάτων이 땅 이외의 소유를 가리킴을 알려준다. (2) *Antiquity* 8:366에는 “그 자신과 그에게 속한 것이 모두 그 [왕]의 κτήματα이다”(αὐτὸς καὶ οἱ ἐκείνου πάντες κτήματά εἰσιν αὐτοῦ)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여기서 κτήματα는 단지 토지가 아니라 사람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소유를 가리킨다. (3) *Antiquity* 9:240에 사용된 κτήματα는 바로 앞(*Antiquity* 9:239)에 언급된 금과 은을 가리킨다고 보인다. (4) *Antiquity* 11:290에서 “아무도 그들에게 속한 κτημάτων에 손을 대지 않았다”(οὐδενὸς τῶν ἐκείνοις ὑπαρχόντων ἤψαντο κτημάτων)는 표현은 κτημάτων이 손을 대어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κτημάτων은

토지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5) *Jewish War* 1:86에는 “그 [Amathus라는 요새] 속에 제노(Zήνων, Zeno)의 아들 테오도로스(Θεόδωρος, Theodorus)의 κτημάτων 중 가장 값진 것들이 있었다”(τὰ τιμιώτατα δὲ τῶν Θεοδώρου τοῦ Ζήνωνος κτημάτων ἦν ἐν αὐτῷ)는 표현이 있다. 이것은 κτημάτων이 유동성 재산을 가리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6) *Jewish War* 2:504에서는 “각종 κτημάτων으로 가득찬 산들”(τὰ ὄρη πλήρη δὲ παντοίων κτημάτων)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러한 표현은 κτημάτων이 산 속에 채워진 유동성 재산을 가리킴을 알게 한다. (7) *Jewish War* 3:62에서 διαρπάζοντες τὰ ἐπὶ τῆς χώρας κτήματα라는 표현은 κτήματα가 땅 위에 있는 어떤 것들로서 약탈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여기서 κτήματα는 토지를 가리키지 않는다.

이 외에도 κτήμα란 단어가 사용된 요세푸스의 작품의 여러 구절들에서는 κτήμα가 “소유지”를 가리킨다는 분명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Antiquity* 6:46, 61, 339; 8:114, 329, 369; 9:17; 10:16; 14:157, 160; *Jewish War* 1:104, 201; 2:122; 3:71; 4:94, 574; 6:188).

요세푸스의 작품에서 최소한 8군데에서 κτήμα는 ‘소유지’를 가리킨다. 그러나 다른 많은 곳에서 κτήμα는 유동성 재산을 가리키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κτήμα가 ‘소유지’를 가리킬 필연성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이 충분함을 보여준다.

5. 마가복음 10:22의 문맥과 κτήματα의 의미

κτήμα가 ‘토지’일 가능성은 마가복음 10:22의 κτήματα가 실제로 ‘토지’를 뜻함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충분한 증거는 마가복음 10:22 문맥에서 찾아야 한다. 즉, 마가복음 10:22에서 κτήματα가 ‘토지’라는 의미를 가질

때 문맥에 맞는지 주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10:22에서 κτήματα가 ‘토지’를 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지적한 학자들도 있다. 테일러(Taylor)는 κτήματα가 농장, 밭 등의 토지 소유의 일부를 가리키며, 복수 형태 κτήματα는 소유지(estates)를 가리키며 22절에서 그 사람이 지주(‘a landed proprietor’)임이 밝혀진다고 주장한다.¹⁴⁾ 레인(W. L. Lane)과 스웨테(H. B. Swete)는 마가복음 10:22의 κτήματα가 ‘토지’(estates)를 뜻한다고 간주한다.¹⁵⁾ 페쉬(R. Pesch)도 마가복음 10:22에서 κτήματα가 ‘토지 소유’(Grundbesitz)를 가리킨다고 간주하였고,¹⁶⁾ 맨(C. S. Mann)도 κτήματα가 재산 중, 특히 ‘토지’와 관련된다고 본다.¹⁷⁾ 번역학자들 중 브랫처(R. G. Bratcher)와 나이다(E. A. Nida)는 κτήματα가 일반적으로는 재산을, 특수하게는 토지를 가리킨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문화권에 따라 ‘농장’이나 ‘가옥’으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⁸⁾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맥상의 증거를 대지 않았으므로, 그 증거들을 찾는 것은 이 논문의 몫이다.

마가복음 10:22은 κτήματα를 많이 가진 사람이 슬퍼하며 떠나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21절과 관련하여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는

14) V. Taylor,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430.

15) W. L. Lane,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Grand Rapids: Eerdmans, 1974), 362, 368; H. B. Swete, *Commentary on Mark* (Grand Rapids: Kregel, 1977), 227.

16) R. Pesch, *Das Markusevangelium, II,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Freiburg: Herder, 1984), 22.

17) C. S. Mann, *Mark*, AB (New York: Doubleday, 1986), 401.

18) R. G. Bratcher and E. A. Nida, *A Translator's Handbook on the Gospel of Mark*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61), 321, 322: “The cultural equivalent of great possessions is in many languages ‘many farm’ and in others ‘many houses.’”

예수께서 그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기 때문이다. 즉, 그가 슬퍼한 이유는 그가 포기해야 하는 κτήματα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문맥에서 κτήματα는 토지도 될 수 있고 다른 유동성 재산일 수도 있다. 다만 팔아야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토지나 집일 가능성이 높다. 유동성 재산, 특히 돈이라면 팔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0:22에 나오는 κτήματα의 의미에 관한 결정적인 단서는 예수께서 그에게 κτήματα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명령한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21절).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데 부족한 것임을 19-20절을 살펴보면 곧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가 κτήματα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이유는 율법 준수와 관련되어 있다.

κτήματα가 토지인 경우에는 이것을 많이 가진 자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이유를 율법에서 찾을 수 있다. 율법은 토지를 많이 가지는 것을 금한다. 구약의 토지법을 따르면 토지를 많이 가질 수 없었다. 지계표를 옮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신 27:17).¹⁹⁾ 레위기의 토지법에 의하면 토지를 영구 매매하면 안 되고(레 25:23), 희년 때까지 임대할 수 있을 뿐이다(레 25:14-16, 28). 희년이 되면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다.²⁰⁾ 그러므로 토지법을 따르면서 토지를 많이 가질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께 영생의 길을 질문한 이 사람은

19) 잠언 23:10도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명한다.

20)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레 25:23).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이다(민 32장; 수 13장 이하). 나봇이 자신의 포도원을 아합 왕의 땅과 교환하기를 거부한 것은(왕상 21:3) 이러한 토지법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었다. 조상이 율법을 어기고 사취한 토지를 그가 물려받아 소유하고 있었을 경우에도 그것을 돌려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었다.

κτῆματα가 유동성 재산인 경우에는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쪽에 강조점이 놓이게 된다. 율법의 정신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보호하는 것이므로(신 15:10-11), 예수께서 이를 좀 더 철저하게 명하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율법의 정신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유동성 재산을 포기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율법 지킬 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분깃으로 가질 수 있는 이상의 토지를 포기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볼 수 있다. 팔아서 처분하라는 말씀 앞에 부자가 항의 한 마디 못하고 슬피하며 돌아간 것도 처분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암시해 준다. 토지를 많이 가진 것은 명백하게 율법에 위배되므로 토지를 처분하라는 합법적인 요구 앞에 그 부자는 더 이상 처분해야 하는 이유를 묻지 못하고 그저 슬피하며 돌아갔을 것이다.

29절에서 버림의 목록에 ‘전토’(ἀγρούς)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κτῆματα가 유동성 재산이 아닌 증거이다. 29-30절은 가옥이나 전토, 가족을 포기한 자가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21절은 가진 것들을 포기한 자가 하늘에서 보화를 받는다고 약속한다. 따라서 29-30절은 21절과 평행을 이룬다. 따라서 21절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명해진 ‘네가 가진 것들’은 29절이 언급하는 가옥, 가족, 전토에 평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21절의 ‘네가 가진 것들’은 29절의 목록 중 팔 수 있는 가옥과 전토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2절에서 그 부자에게 κτῆματα가 많았다고 할 때 그것은 ‘가옥’이나 ‘토지’를 가리킨다. 그런데 κτῆματα는 용례상 가옥이 아니라 토지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κτῆματα는 ‘토지’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런데 23절에는 ‘재물’, ‘부’, ‘돈’ 등을 뜻하는²¹⁾ χρήμα의 복수형 χρήματα가 등장한다. 문맥도 χρήματα가 토지가 아님을 알려 준다. “χρήματα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예수의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움으로 반응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χρήματα는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고 추측할 수 있다. χρήματα가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다면 제자들은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율법을 여기면서 토지를 많이 소유한 자에 관한 부정적 평가는 토지를 많이 가지는 것을 금하는 구약의 토지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23절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이 되려면 χρήματα는 토지가 아니라 재물을 가리켜야 한다. 구약에 의하면 부유함은 율법을 잘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일 수 있다(신 28:2-6). 이러한 구약의 내용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는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쉽지 어렵다는 말씀이 놀라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²²⁾

예수께서 23절부터 재물을 다룬다는 사실은 22절까지에서 다루어진 내용도 재물에 관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게 한다. 예수는 토지가 아니라 재물이 많은 부자에게 그의 재물을 포기하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일 수도 있다. 그가 재물을 포기하기 힘들어 슬퍼하며 돌아간 것을 보고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구원받기 어렵다고 지적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읽을 경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21절)는 예수의 지적을 이해할 수 없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으면 과연 율법을 지키는 데 부족한 것일까? 물론 가난한 자들을

21) BDAG, 1089.

22) J. R. Donahue & D. J. Harrington, *The Gospel of Mark*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2), 304.

배려하는 율법 정신을 염두에 둘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28-29절에서 토지와 가옥이 포기의 목록에 들어가고 유동성 재산이 빠져 있는 것은 23절의 ‘재물’(χρήματα)마저도 특별히 가옥과 토지를 염두에 둔 것이며, 25절의 ‘부자’(πλούσιον)도 토지를 많이 가진 부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더구나 23절에 χρήματα를 사용한 것은 마가복음의 서사의 흐름 속에서 예기하기 못한 전환을 통해 놀라움을 일으키는 충격요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마가복음의 예수는 영생을 얻는 길을 율법, 특히 십계명에 관련시켜 십계명을 지켜 안심하는 부자에게 토지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해서 그를 놀라게 한다. 이어서 토지법을 지켜 안심하는 제자들에게 토지만이 아니라 부 일반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해서 다시 한 번 놀라게 한다. 이러한 놀라움은 마침내 제자들을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하는 절망으로 몰아간다. 이 절망은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 회의를 가지게 만든다. 이러한 절망 후에 반전이 도래한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이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27절). 이러한 흐름 속에서 22절은 “토지”에 관하여 23절은 “재물”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은 일관성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극적 효과를 낳는 문학적 기법으로 볼 수 있다.

28-31절까지의 말씀은 27절에 도입된 반전에 이어지는 위로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구원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27절). 그리하여 반드시 구원 받는 사람들이 있다. 즉,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가옥이나 가족, 전토를 버린 사람들은 구원받는다(29-30절).²³⁾ 여기서 재물 일반에 관한

23) ‘영생을 얻다’는 표현은 ‘구원받다’는 표현과 동의적 표현이다. 마가복음 9:45에서 ‘영생을 얻다’는 표현은 마가복음 9:47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가르침은 가옥, 전토 등 부동산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리고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가족이 추가적으로 다루어진다. 이것은 아마도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처한 삶의 자리를 반영하며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기 위한 본문일 것이다.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여 가옥이나 전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어놓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했을 것이다. 마가복음은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며 구원의 확신을 선물한다.

6. 맺음말

마가복음 10:22의 κτήματα는 한글 번역본들과 외국어 번역본들에서 '재물', '재산'을 가리키는 말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22에서 κτήματα는 '토지'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재물'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πολλά χρήματα가 아니라 '많은 토지', '많은 재물'로 번역될 수 있는 κτήματα πολλά가 원래의 읽기(the original reading)이다. 서방 사본들(D it)이 가진 πολλά χρήματα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본들이 가진 κτήματα πολλά가 원 본문에 담겨 있었다. 마가복음은 πολλά가 명사를 꾸며줄 경우 그것을 언제나 꾸미는 명사 뒤에 두므로(1:34; 4:2; 6:13; 7:4, 13), κτήματα πολλά가 마가복음의 문체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둘째, 마가복음이 알고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구약 70인역에서 κτήμα는 '토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구약 70인역

다'는 말과 동의적으로 평행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는 표현은 마가복음 10:25-26에서 '구원받다'는 표현과 같은 뜻으로 쓰였으므로 마가복음에서 '영생을 얻다'는 표현은 '구원받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서 κτήμα는 잠언 12:27; 23:10; 31:16; 욥기 20:29; 27:13; 호세아 2:17; 요엘 1:11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중에서 잠언 12:27을 제외하고는 ‘토지’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마가복음과 동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작품인 신약성경들에서 κτήμα는 언제나 토지를 가리킨다. 신약성서에서 마가복음 10:22을 제외하면 κτήμα는 3회 쓰였는데(마 19:22; 행 2:45; 5:1), 모두 ‘토지’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마가도 κτήμα를 ‘토지’란 의미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요세푸스의 작품들에서 κτήμα는 ‘재물’이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종종 ‘토지’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마가와 동시대의 유대인으로서의 요세푸스의 작품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한 헬라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요세푸스의 작품들에서 κτήμα가 토지를 가리킬 수 있었다는 것은 마가복음에서도 그럴 수 있었음을 알려준다.

다섯째, 마가복음 10:22의 문맥이 κτήματα를 ‘토지’로 번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율법을 지키는 데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가진 것을 포기하라고 요청받은 자에게 κτήματα가 많았다는 것은 κτήματα를 많이 가지는 것을 율법이 금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율법은 토지를 많이 가지는 것을 금하며(신 27:17)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κτήματα는 ‘재물’보다는 ‘토지’로 번역되어야 한다.

마가복음 10:22에서 κτήματα는 ‘토지’로 번역되어야 한다면 마가복음 10:22의 번역(개역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 사람은 토지가 많은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요어>

마가복음 10:22, 본문 비평, 성서 번역, 주해, 토지, 재물, 70인역, 요세푸스

<Key Words>

Mark 10:22, Textual Criticism, Bible Translation, Exegesis, Land, Possession, Septuagint, Josephus

참고문헌

- 신현우, “사본학과 성경 번역,” 『성경과 신학』 41 (2007), 67-97.
- Aland, B., et al., eds., *Novum Testamentum Graece*, 27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 Aland, K., ed., *Synopsis Quattuor Evangeliorum*, 15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1.
-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F. W. Danker, rev. and ed.,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Bratcher R. G. and Nida E. A., *A Translator's Handbook on the Gospel of Mark*,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61.
- Donahue, J. R., and Harrington D. J., *The Gospel of Mark*,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2.
- Elliger, K. and Rudolph W., ed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0.
- Gesenius, W.,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F. Brown,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44.
- Jülicher, A., ed., *Itala: Das Neue Testament in altlateinischer Überlieferung*, 2, 2nd ed., Berlin: Walter de Gruyter, 1970.
- Lane, W. L.,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Grand Rapids: Eerdmans, 1974.
- Mann, C. S., *Mark*, AB, New York: Doubleday, 1986.
- Pesch, R., *Das Markusevangelium*, II,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Freiburg: Herder, 1984.
- Rahlfs, A., ed.,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35.
- Swanson, R. J., *New Testament Greek Manuscripts: Mark*,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Swete, H. B., *Commentary on Mark*, Grand Rapids: Kregel, 1977.
- Taylor, V.,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London: Macmillan, 1955.

<초록>

‘재물’인가, ‘토지’인가?

-마가복음 10:22의 본문 비평, 주해와 번역-

신현우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신약학)

한글 번역본들과 외국어 번역본들에서 ‘재물’, ‘재산’이나 이에 해당하는 단어로 번역된 마가복음 10:22의 κτήματα는 ‘토지’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방 사본들에 담긴 πολλά χρήματα(‘많은 재물’)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본들에 담긴 κτήματα πολλά(‘넓은 토지’, ‘많은 재물’)가 원래의 읽기(the original reading)이다. 마가복음은 πολλά가 명사를 꾸며줄 경우 그것을 언제나 수식하는 명사 뒤에 두므로(1:34; 4:2; 6:13; 7:4, 13), κτήματα πολλά가 마가복음의 문체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둘째, 마가복음이 알고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구약 70인역에서 κτήμα는 잠언 12:27; 23:10; 31:16; 욥기 20:29; 27:13; 호세아 2:17; 요엘 1:11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중 잠언 12:27을 제외하고는 κτήμα가 ‘토지’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마가복음과 동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작품인 신약성경들에서 κτήμα는 언제나 토지를 가리킨다(마 19:22; 행 2:45; 5:1). 그러므로 마가도 κτήμα를 ‘토지’란 의미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마가와 동시대의 유대인인 요세푸스의 작품들은 당시에 유

대인들이 사용한 헬라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작품들에서 κτήμα는 ‘재물’이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종종 ‘토지’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κτήμα가 마가복음에서도 토지를 가리킬 수 있었음을 알려준다.

다섯째, 마가복음 10:22의 문맥에서 κτήματα는 ‘재물’보다는 ‘토지’를 가리킬 때 문맥에 더 잘 맞는다. 율법을 지킬 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가진 것을 포기하라고 요청받은 자에게 κτήματα가 많았는데, 율법은 토지를 많이 가지는 것을 금하며(신 27:17) 재물을 많이 갖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κτήματα는 ‘토지’라는 뜻일 때 문맥에 맞는다.

<Abstract>

‘Possessions’ or ‘Lands’?: Textual Criticism, Exegesis and Translation of Mark 10:22

Prof. Hyeon Woo Shin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Κτήματα in Mark 10:22, which has been translated as ‘possessions’ or ‘property’ in most translations, should be translated as ‘lands’ or ‘estates,’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reasons.

First, *πολλὰ χρήματα* ('great possessions') is found in Western manuscripts, but *κτήματα πολλά* ('large land,' or 'great estates'), which is found in most manuscripts, may be the original reading. Mark always puts *πολλά* after the word which it describes (1:34; 4:2; 6:13; 7:4, 13), and thus *κτήματα πολλά* fits Mark's style.

Second, the Septuagint, which may have been known and used by Mark, adopts the word *κτῆμα* in Proverb 12:27; 23:10; 31:16; Job 20:29; 27:13; Hosea 2:17; Joel 1:11. In these passages, the word *κτῆμα* refers to 'land' except in Proverb 12:27.

Third, in the other books of the New Testament, which were written by Mark's contemporary Christians, the word *κτῆμα* refers to 'land' (Matt 19:22; Acts 2:45; 5:1). Thus, Mark may also have used the word *κτῆμα* in that meaning.

Fourth, Josephus, who was Mark's contemporary Jew, used the word *κτῆμα* not only in the meaning of 'possession' but also in the meaning of 'landed property.' This usage indicates that Mark may also have used the word to mean 'landed property.'

Fifth, *κτήματα* fits the immediate context of Mark 10:22 in the meaning of 'lands' rather than in the meaning of 'possessions.' In Mark 10:21, Jesus commands a person to sell what he has and give to the poor since the person lacks

one thing in keeping the Law. In other words, the person should keep the Law by selling what he has and giving to the poor. Thus, what he has may have been large areas of land, which is prohibited to have by the Law(Deut 27:17). Therefore, κτήματα in Mark 10:22, that is described to have been possessed by the person, may refer to 'lands.'